

간화선·위빠사나 '선정' 서 동질성 찾아

조계종 불학연구소 제9차 간화선 세미나 개최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각각 대승과 소승불교의 대표 수행법이다. 국내에서는 간화선 우위의 추세 속에 간화선 전문가들은 위빠사나를 '낮은 단계의 소승불교 수행법'이라 폄하하고, 위빠사나 전문가들은 부처님 전통수행법을 주장하며 '간화선이야말로 종파불교의 산물'이라며 반박해왔다. 불교수행법으로서의 동질성보다 차별성이 부각된 현실에서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동질성을 강조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간화선의 지평확대를 위한 학술적 모색'을 주제로 제9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를 11월 21일 개최했다. 선심리치료 분야 국내개척자 김보경 명예교수(영북대)와 조계불교 전공자 조준호 연구원(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은 각각의 주제발표를 통해 간화선이 심리치료로 이해되고 위빠사나와 통섭됨을 강조했다.

조준호 연구원은 주제발표 '간화선과 위빠사나'에서 간화선과 위빠

사나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가르침이라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위빠사나 수행은 '선정의 바탕 없이 위빠사나는 가능하다'는 등 선정한 무관한 수행법이라는 주장에서 지금까지 간화선 우위를 입장에서 위빠사나 열등론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현재 유통되는 위빠사나는 대부분 근본 위빠사나 수행법이 아닌 대중 교화 방편에서 개량된 위빠사나. 조준호 연구원은 "개량된 위빠사나가 마치 초기불교 위빠사나인양 소개돼 위빠사나와 화두선이 별개인 것으로 왜곡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리인식에 가장 중요한 용어들을 '알아차림' '감지한다' '마음챙김' '마음지킴' 정도로 사용하는 것도 위빠사나가 오해 받은 원인"이라 설명했다.

조준호 연구원은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교집합을 선정(禪定)에서 찾았다. 조 연구원은 "간화선에 '선(禪)' 자가 붙은 이유와 위빠사나의 사념처에 있어 '염(念)'은 바로 선정

의 범위 안에 있다는 말"이라며 "일각의 선정 배제나 선정 경시는 비판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화두와 Sati(念)의 역할과 기능이 상통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준호 연구원은 "간화선에서 잡에서 조차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한결같아야 한 것이나 위빠사나에서 '잡자는 동안(sutte)'에도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이나 같다"며 "화두나 위빠사나 깨어있는 본성을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위빠사나 수행의 목적은 △모든 중생의 정화를 위해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기 위해 △고통과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 △슬바른 수행의 길을 위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다. 조 연구원은 "위빠사나를 구경열반의 일승도(一乘道)라 한 것이나, 간화선이 최상승선(最上乘禪)이라 한 것은 그 기준이 모두 깨달음과 열반에 있다는 점에서 결국 같다"고 말했다. '단 하나의 수행법(일승도)'나 '최고의 수행법(최상승선)'이나 결국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기 위한 한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동질성에 대해 발표한 조준호 연구원(왼쪽)과 논평한 임승택 교수.

길을 간다는 조준호 연구원의 주장은 불교는 '극단적 수정주의(修定主義)'로도 표현했다.

조 연구원은 "낮은 단계로도 열반·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정통을 벗어난) 개량된 위빠사나가 간화선과의 갈등을 야기했다"며 수행에 지친 사람들이 솔깃해 하는 현실도 비판했다.

조준호 연구원은 "경전에는 항상 계·정·혜 삼학이 강조됐다"며 같

들의 해법이 부처님 말씀과 경전에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김보경 명예교수는 '간화선 수행과 심리치료'를 발표했다. 김 명예교수는 "연기와 무아관으로 정리되는 불교의 핵심적 철학이 학습 및 행동심리학의 철학적 배경과 다르지 않다"며 "선은 무지에서 오는 온갖 번뇌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과학적 방법"이라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lana@buddhanews.com

금당 부속건물 있다

정림사지서 백제 가람구조 밝혀져

백제 사비도성의 중심사찰이었던 부여정림사지(사적 제108호) 발굴과정에서 백제시대 가람구조가 새롭게 밝혀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 정림사지를 발견했던 후지사와 가즈오의 학설을 인용해 백제 가람은 '일(田)자형'으로 남북 직선축을 따라 대문-탑-금당(金堂, 본존불이 있는 본당)-강당이 놓이고 사방에 회랑을 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1탑 1금당식'으로 불리는 가람 형식은 일본 오사카 시텐노지(四天王寺) 등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하지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심영섭)가 금년 실시한 제8차 조사결과, 강당지(동서길이 39.1m, 남북 폭 16.3m) 좌우로 1m 간격을 둔 대형 부속건물지(동서 폭 12.1m, 남북길이 39.3m)가 발견됐다. 이러한 강당 및 금당 좌우로 회랑과 연결된 부속건물의 배치형태는 6세기 세워진 부



부여정림사지 조감도.

여 능산리사지, 부여 왕송사지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전형적인 백제시대 가람구조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김낙중 학예연구원(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은 "1942년부터 7차례 걸친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사실이 이번에 새롭게 밝혀졌다"며 "기존에 조사돼 다른 가람 배치로 보고된 사지에 대한 재검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동·서양 철학의 융합 모색... 학계 주목

한자경 교수 제2회 청송학술상 수상

한자경 교수(이화여대·사진)가 재단법인 청송장학회(이사장 소광희)가 선정, 시상한 제2회 청송학술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1월 15일 서울 한천문화관에서 개최됐다.

한자경 교수는 독일에서 선철학을 전공하고 다시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학자다.

<칸트와 초월철학> <철학의 원리로서의 자아> 등 역서를 통해 한국에 근대 독일관념론을 소개했고, 저서 <유식무경> <불교철학의 전개> 등으로는 불교철학의 심식이론을 체계화했다. 특히 한 교수는 <자아의 연구> <동서양의 인간이해> <입심(입심)의 철학> 등에서 자아·주체·마음·인간 등에 관한 동서양 철학의 융합을 모색해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저서 <불교의 무아론>은 무아론이 윤회론, 해탈론과 양립할 수 있는 사유를 밝혀 동서양 철학을 회통시켰다는 호평 속에 청송학술상을 수상하게 됐다.

소광희 이사장은 "한자경 교수는 청송 선생처럼 동서양 철학의 가교를 놓는 등 학문적 경향이 같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청송학술상은 국내 서양철학 연구 1세대로 불교 철학 연구의 기틀을 다진 후 청송 고령군 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7년 고전 전 총리가 청송장학회 설립과 함께 제정된 상이다.

고 교수는 고건 전 총리의 부친이다. 연세대·서울대 철학과 교수와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 전북



대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철학의 대중화와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1970년 동국대 역경원 심사위원도 지냈던 고령군 교수는 선(禪)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 진력했다. 특히 학계 최초로 서양철학인 하이데거 철학으로 선학을 설명한 저서 <선의 세계>는 동서양 철학을 회통시킨 수작으로 통한다. 말년에는 원호 연구에 전념해 1987년부터 10여 년간 내장산에서 <금강삼매경론> 재해석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종교차별금지입법 위헌일수도"

한국불교학회 학술대회서 이정훈 교수 주장

조문환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안, 민주당안, 종교자유정책연구원안 등 종교차별금지 법안이 줄 잇는 가운데 종교차별금지입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이 '근대불교 선각에 대한 회고'를 주제로 11월 22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제48회 전국불교학술회의를 개회했다.

자유주제발표에 참여한 이정훈 교수(울산대)는 주제발표 '정교분리의 원칙과 불교계의 종교차별금지 입법 요구의 위헌성'에서 "불교계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교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사례를 ①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특정종교집회에서 '서울시 봉헌' 발언 ②포항시 예산

의 성시화 운동 지원 ③성북구청의 교동(교동-동사무소) 연합회로 나눠 설명했다. 이 교수의 법리해석에 따르면 ②번 사례만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일 뿐, ①번 사례는 법적인 대상 자체가 될 수 없고, ③번 사례는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인지 선교 등 종교목적인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정해진다.

이 교수는 "오히려 공직자의 사적인 신앙과객을 법으로 제한하거나 정치적 불이익을 고지해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소지마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정훈 교수는 "불교계의 종교차별 관련 입법요구는 법리상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고, 대정부 요구 내용 또한 다소 감정적"이라며 "불교계의 입법요구 내용과 대정부 요구 내용은 상당부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간화선 대중화로 영성에 다가가야"

종교교육학회 세미나

과학자마저도 영성을 이야기하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라 불린다. 영성이 대중화되고 보편화 되는 시대, 불교 등 종교계가 전략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회지도자적인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황수경(동국대 강사)씨는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가 11월 14일 선문대에서 '영성계발과 종교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불교의 수행과 영성계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씨는 "현재는 기업도 SQ(영적지능, Spiritual Quotient)를 강조하는 추세"라며 "종교가 종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실천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종교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 강조했다. 황수경씨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간화선 대중화다. 황씨는 "소수 엘리트만의 난해하고 어려운

방법으로는 어렵다. 간화선 대중화를 비롯해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일반인이 영성에 쉽고 빠르게 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육식' 학술대회

東大 불교문화연구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동국대 법과대학 모의법정실에서 '육식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2008년 추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외이 소우교 교수(일본, 동양대학), 아사카 교수(스리랑카, 톨롬보 대학), 황사니엔 교수(중국, 사회과학원), 박정진 교수(한양대), 고영섭·허남결·김동일 교수(이상 동국대)가 발표자로 나선다. (02)2260-8507 조동섭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전문대학(Hypnosis Career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제37기 최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



"한마디 말"로 三生을 깨꿨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 ▶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 ▶ 수련비 : 200만원
- ▶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가능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의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 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 재물이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는 근검재계요....
최면학	최심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중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화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집중!!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성동 248-301(청문빌딩2층) 042)255-0734~5